

##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Family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Kim, Ye Su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Kim, Soyoung<sup>1)</sup>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factors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family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Hayes' SPSS macro Model 1 analysis were used.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19 (middle and high school). The number of middle school participants was 2,898, and the number of high school participants was 3,354.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variables in the data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perception of school-life, and school-life satisfaction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happiness in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in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imilar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elf-esteem was more influential on happiness than economic status. Third, the school facto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only when the perception of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is in the model.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in all analys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chool facto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However, sinc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confirmed in this study is small, it is necessary to re-verify through various studies in the future. Finally, there was a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Adolescent, happiness, self-esteem, family economic status, school factors

---

---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g,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ae-Daero, Songpa-Gu, Seoul, Korea, 05541 / E-mail: ksy041@hanmail.net

## 청소년 자아존중감, 가정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변인의 조절효과

김예성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김소영<sup>1)</sup>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 요약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가정 경제수준의 관계에 대한 학교요인(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898명, 고등학생 3,354명이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수준의 영향력보다 컸다. 셋째, 학교요인은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는데, 중학교의 학교생활 인식이 모델에 투입되었을 때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와 다르게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가정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경우에 조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의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행복, 학교변인

1) 교신저자: 김소영, 교수,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y041@hanmail.net  
논문투고일자: 2023. 05. 15 / 심사일자: 2023. 05. 23 / 게재확정일자: 2023. 06. 02

##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Yeom & Kim, 2019; Yeom & Seong,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는 주관적 행복을 주관적 건강(주관적 불건강), 학교생활(학교생활 만족), 개인행복(삶의 만족, 소속감 못느낌, 어울림 못느낌, 외로움)을 고려하였고, 이 변인들의 응답을 여러 통계적 과정을 거쳐 산술 평균으로 산출하여 행복지수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주관적 행복과 달리 물질적 행복도 조사하였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중위 수입의 50% 이하), 미취업 가정(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결핍(교육여건, 문화적 결핍)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질적 행복은 주관적 행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행복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주택, 경제수준 등의 물질적 조건이나 건강, 친구, 교육, 여가 등의 객관적 상황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주관적 지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측정한다(Do,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의 물질적 행복은 행복의 객관적 지표, 주관적 행복은 여러 변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한 행복의 주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Jang et al.(2020)에 의하면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이므로 주관적 지표로 측정되는 주관적 행복감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다.

주관적 행복감의 정의는 다양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정서 상태에서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 (Kim et al., 2006),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및 생활만족도’ (Jo, 2014),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Lee, 2019)이다. 또는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환경요인(부모 양육 환경, 학교 또는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된다(Jo, 2014; Lee, 2018; Ra & Kim, 2022; Suh & Jung, 2014). Ra & Kim(2022)은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Suh & Jung(2014)은 개인 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Jo(2014)는 청소년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을 개인의 내적 특성, 가족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Lee(2018)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설정한 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Jung & Kim(2022)은 ‘청소년 행복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ERG이론(Alderfer, 1972)에 근거하여 생존(existence)욕구, 관계(relatedness)욕구, 성장(growth)욕구로 구분하였다. ERG이론은 욕구 자체를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행복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가 충족될 때 높아진다고 본다. 생존욕구 변인은 신체건강과 심리적 건강과 관련 있는 변인이고, 관계욕구 변인은 가족관계,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 성장욕구 변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자아정체감 등 개인의 정의적 특성 변인들이다. 위 세 욕구 관련 변인들은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Jung & Kim, 2022).

본 연구는 위에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교요인(관계욕구)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Jeon & Yoo, 2015; Kang & Lee, 2022; Lee, 2018; Lee, 2021; Seong & Yoon, 2010)과 경제수준(Hong, 2020; Jang et al., 2020; Kim & Park, 2007; Lee, 2016; Lee, 2018)은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은 높아졌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장욕구 변인들 중에서도 행복에 대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며, 행복과 상관관계도 높다(Jung & Kim, 202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Jung & Kim, 2022). 생존욕구의 하위변인으로 구분된 경제수준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자녀들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다. 관계욕구의 한 측면인 학교생활도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2022; Lee & Choi, 2014). 교우관계(Jeon & Yoo, 2015; Kwon & Yun, 2020), 교사관계(Heo, 2009)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또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즐거움과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수록 청소년 행복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원만한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Jung & Kim, 2022).

여러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함께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도 탐색한다(Cho, 2017; Jang, 2018; Kim, 2018; Kim, 2021; Ko, 2020; Park & Sung, 2018; Seo, 2018; Song, 2020; Yun & Kim, 2020). 조절효과 변인은 그릿,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상호문화역량,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감, 신체활동, 가족관계요인, 성격강점, 인지적 정서조절역량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 중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감 등 관계욕구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가

활발하였다(Jang, 2018; Kim, 2018; Kim, 2021; Park & Sung, 2018; Seo, 2018; Yun & Kim, 2020).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을 조절하였고(Kim, 2018), 대인관계 유능감은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Park & Sung, 2018; Seo, 2018).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Kim, 2021). 또한 사회적지지(교사지지)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조절하였다(Jang, 2018).

사회적 지지는 ERG이론의 관계욕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나누며 사회 관계망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며 가치롭게 여기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Cobb, 1976). 청소년기는 많은 혼란을 직면하는 시기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다(Kim, 2021). 부모 외에 또래, 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행복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물론 비행이나 음주와 같은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Yun & Kim, 2020). 가정 외에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학교에서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학교 교사들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청소년의 행복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간 관계는 어떠한가?
- 2)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은 청소년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학교요인(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은 청소년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행복과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의 관계를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 변인이 조절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모든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898명, 고등학생 3,354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에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n	%	n	%
성별	남학생	1,510	52.1	1,752	52.2
	여학생	1,387	47.9	1,602	47.8
	결측	1	0.0	-	-
학년	1학년	900	31.1	1,000	29.8
	2학년	979	33.8	1,114	33.2
	3학년	1,019	35.2	1,240	37.0
지역	특별/광역시	1,176	40.6	1,400	41.7
	중소도시	1,377	47.5	1,501	44.7
	읍면지역	344	11.9	453	13.5
	결측	1	0.0	-	-
합계		2,898	100.0	3,354	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인은 행복이었고,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가정의 경제수준이다. 조절변인은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이었다. 모든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만이 4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3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도 3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Cronbach  $\alpha$ 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83, .82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이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Cronbach  $\alpha$ 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71, .67이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이다. 행복은 4단계 1문항으로, 경제수준은 7단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고, 학교생활만족도는 4단계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았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alpha$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Hayes(2017)의 SPSS macro model 1로 분석하였다.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경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 통계적 유의성과 표준화 계수 크기, 설명량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행복,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변인의 기술통계가 학교급별로 <표 2>, <표 3>에 나타나 있다. 다음 <표 2>, <표 3>에 나타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 이하로 정규분포를 충족하고 있다. <표 2>, <표 3>의 변인 중 1점이 최소값, 4점이 최대값인 변인은(행복,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3점 수준을 보인다. <표 2>, <표 3>의 대

부분 변인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변인의 수치보다 다소 높아 보인다. 행복 평균은 중학생이 3.10, 고등학생이 2.96이었고,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이 3.02, 고등학생이 2.96이었다. 이 외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도도 중학생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표 2> 중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i>N</i>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왜도	첨도
행복	2,898	1.00	4.00	3.10	.69	-.46	.23
자아존중감	2,898	1.00	4.00	3.02	.73	-.36	-.56
경제수준	2,898	1.00	7.00	4.74	1.06	.02	.30
학교생활 인식	2,898	1.00	4.00	3.16	.55	-.32	.35
학교생활 만족	2,898	1.00	4.00	3.01	.66	-.62	1.22

<표 3> 고등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i>N</i>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왜도	첨도
행복	3,354	1.00	4.00	2.96	.67	-.35	.31
자아존중감	3,354	1.00	4.00	2.96	.72	-.24	-.63
경제수준	3,354	1.00	7.00	4.43	1.03	.05	.45
학교생활 인식	3,354	1.00	4.00	3.11	.53	-.17	.26
학교생활 만족	3,354	1.00	4.00	2.90	.65	-.61	1.11

## 2.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중학교에서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자아존중감( $r=.508$ )이었다. 학교생활 인식( $r=.487$ ), 학교생활 만족( $r=.493$ )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경제수준( $r=.259$ )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인식( $r=.454$ ), 학교생활 만족( $r=.389$ )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등학교에서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자아존중감( $r=.465$ )이었다. 학교생활 인식( $r=.425$ ), 학교생활 만족( $r=.459$ )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경제수준( $r=.213$ )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인식( $r=.383$ ), 학교생활 만족( $r=.332$ )과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표 4> 중학교, 고등학교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행복	자아존중감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
행복	-	.465**	.213**	.425**	.459**
자아존중감	.508**	-	.231**	.383**	.332**
경제수준	.259**	.234**	-	.159**	.134**
학교생활 인식	.487**	.453**	.195**	-	.624**
학교생활 만족	.493**	.389**	.181**	.655**	-

\*\*  $p < .01$

비고: 대각선 기준 왼쪽 아래=중학교( $N=2,898$ ), 대각선 기준 오른쪽 위=고등학교( $N=3,354$ )

### 3. 조절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유의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인식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서는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나타났다. 아래 <표 5> ~ <표 9>에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은 중학생의 학교생활 인식이었다.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47, p < .01$ ).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20, p < .01$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 = -.055, p < .05$ ).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 $p < .0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효과는 작아졌다.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의해 조절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 = .112, p < .01$ ),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591, p < .01$ ).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 = -.038, p < .05$ ).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 $p < .0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생활 인식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중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도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117, p<.01$ ),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487, p<.01$ ).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038, p<.05$ ).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2( $p<.0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고,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고등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인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089, p<.01$ ).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인식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488, p<.01$ ).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인식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058, p<.01$ ).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3( $p<.0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중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인식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도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경제수준은 종속변인인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093, p<.01$ ). 조절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454, p<.01$ ). 경제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상호작용은 행복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032, p<.05$ ). 또한 상호작용이 추가될 때  $R^2$  변화량은 .001( $p<.05$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경제수준과 행복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과 행복의 관계 효과는 더 작아졌다.

<표 5> 중학교 행복과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S.E.	t
행복	상수	3.123	.011	275.06**
	자아존중감(a)	.347	.016	21.65**
	학교생활만족(b)	.420	.022	19.35**
	a×b	-.055	.024	-2.29*

모델 전체의 $R^2$		$R^2 = .356, F=522.04,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 .001, F=5.24,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3775	.021	18.41**
M	.3474	.016	21.65**
+1SD	.3172	.021	15.12**

\*  $p<.05$ , \*\*  $p<.01$

<표 6> 중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S.E.	$t$
행복	상수	3.122	.011	277.08**
	경제수준(a)	.112	.011	10.48**
	학교생활 인식(b)	.591	.021	28.36**
	a×b	-.038	.017	-2.30*
모델 전체의 $R^2$		$R^2 = .277, F=363.12,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 .001, F=5.30,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1326	.014	9.76**	
M	.1120	.011	10.48**	
+1SD	.0914	.014	6.41**	

\*  $p<.05$ , \*\*  $p<.01$

<표 7> 중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S.E.	$t$
행복	상수	3.122	.011	277.68**
	경제수준(a)	.117	.011	10.95**
	학교생활만족(b)	.487	.017	28.31**
	a×b	-.038	.013	-2.81**
모델 전체의 $R^2$		$R^2 = .277, F=362.41,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 .002, F=7.92, p<.01$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만족)	Effect	S.E.	$t$	
-1SD	.1416	.014	10.43**	
M	.1167	.011	10.95**	
+1SD	.0918	.014	6.51**	

\*\*  $p<.01$

<표 8> 고등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S.E.	t
행복	상수	2.963	.010	289.97**
	경제수준(a)	.089	.010	8.84**
	학교생활인식(b)	.488	.019	25.15**
	a×b	-.058	.017	-3.51**
모델 전체의 $R^2$		$R^2=.187, F=271.15,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003, F=12.35, p<.01$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인식)	Effect	S.E.	t	
-1SD	.120	.013	9.058**	
M	.089	.010	8.839**	
+1SD	.058	.013	4.346**	

\*\*  $p<.01$

<표 9> 고등학교 행복과 경제수준 관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S.E.	t
행복	상수	2.960	.010	298.21**
	경제수준(a)	.093	.010	9.45**
	학교생활만족(b)	.454	.016	29.29**
	a×b	-.032	.013	-2.36*
모델 전체의 $R^2$		$R^2=.227, F=346.12, p<.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001, F=5.58, p<.05$		
조건부 간접효과 (학교생활 만족)	Effect	S.E.	t	
-1SD	.113	.013	8.840**	
M	.093	.010	9.452**	
+1SD	.072	.013	5.439**	

\*  $p<.05$ , \*\*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자아존중감, 가정 경제수준의 관계에 대한 학교요인(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Hayes(2017)의 SPSS macro model 1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고등학생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행복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인식, 경제수준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행복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인식, 경제수준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ang & Lee(2022), Lee(202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음을 보여준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Heo, 2009; Jeon & Yoo, 2015; Kwon & Yun, 2020)와도 일치한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며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인데(Jung & Kim, 2022), 가정과 학교는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 교육환경 등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에 제시한 분석 외 모두, 학교요인의 조절효과가 없었던 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중학교 행복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고등학교 행복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 고등학교 행복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생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 앞선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수준의 영향력보다 컸다. 자아존중감은 성장육구에 속하는 변인으로 여러 변인 중에서도 행복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이었다(Jung & Kim, 2022). 가정의 경제수준도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경제수준의 직접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다(Ra & Kim, 2022). 이는 성장육구의 한 측면인 자아존중감이 가정의 경제수준보다 청소년 행복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수준은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경제수준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는 경제수준의 영향력이 직접효과가 아니라 매개효과 등 간접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통해 행복에 대한 경제수준의 영향력 정도와 경로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요인 중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우는 중학교의 학교생활 인식이 모델에 투입되었을 때이다. 중학교의 학교생활 만족이나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했다. 중학교 행복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학교생활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졌는데,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의 행복에 대한 효과는 작아졌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중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학교생활 인식 수준이 낮

은 학생에게는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 인식이 낮을 때보다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져 그 중학생의 행복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학교생활 인식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을 측정된 것으로 위 결과는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대한 중학교 학교생활 인식의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와 다르게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은 가정 경제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경우에 조절하였다. 청소년의 경제수준과 행복과의 관계는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청소년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경제수준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이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록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져 경제수준이 동일하고 학교생활이 부정적인 학생에 비해 행복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학생 자아존중감의 행복에 대한 효과를 조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의 경제수준과 행복에 대한 조절효과는 작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위 결과는 청소년의 고통 감내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 조절하지 못한다는 결과(Yun & Kim, 2020)와 상충되나,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Kim, 2021). 행복과 특정 변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변인(예, 스트레스, 우울, 고통감내력 등)에 대한 완충효과를 탐색한다. 예를 들면, 우울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원만하고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이웃관계 등은 청소년에게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증대하여 부정적 변인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인다(Jung & Kim, 2022). 이 연구에서 탐색한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며, 이 변인들과 행복과의 관계를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조절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 등은 행복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의 영향을 완충할 뿐 아니라 작으나마 긍정적인 변인의 효과도 조절하여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경제수준을 가지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한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에게는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긍정적 학교생활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

다. 학교와 교사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가정 경제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대인관계(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학교생활은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교육관계자나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이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학교생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지라도 효과크기는 작았다. 추후 학교생활 인식, 학교생활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변인의 행복에 대한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학교생활의 행복에 대한 조절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Free Press.
- Chang, H. S. (2022).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growth-mixed model and predictive effect by point in ti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2), 287-315. <http://doi.org/10.21509/KJYS.2022.02.29.2.287> ☞ 국문: 장희선(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변화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9(2), 287-315.
- Cho, S. J. (2017). *An effect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조수진(2017).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o, J. S. (2011).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1-45. ☞ 국문: 도종수(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Guilford Press.
- Heo, S. Y. (2009).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Hong, S. H. (2020). *Data analysis report on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youth big data system 2: A study on structured big data on determinants of youth happines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R08-2). ☞ 국문: 홍성효(2020).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 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R08-2).
- Jang, M. C. (2018).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국문: 장미조(2018).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Jang, Y. J., Lee, S. Y., Song, J. H., & Hong, S. H. (2020). The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level on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private education time and academic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2), 249-273. <http://doi.org/10.21509/KJYS.2020.12.27.12.249> ☞ 국문: 장유진, 이승연, 송지훈, 홍세희(2020).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 Jeon, H. J., & Yoo, M. S. (2015). The path analysis of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microsystem affecting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75-104. ☞ 국문: 전해진, 유미숙(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Jo, E. J. (2014).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37(0), 103-127. <http://doi.org/10.17854/ffyc.2014.01.37.103> ☞ 국문: 조은정(2014). 아동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0), 103-127.
- Jung, S. J., & Kim, H. S. (2022).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happi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24(3), 1-35. <http://doi.org/10.15564/jeju.2022.09.24.3.1> ☞ 국문: 정세진, 김현숙(2022). 청소년 행복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과학연구*, 24(3), 1-35.
- Kang, M. S., & Lee, S. H.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4), 1-13. <http://doi.org/10.22143/HSS21.13.4.1> ☞ 국문: 강민식, 이선화(2022). 청소년의 행복감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3(4), 1-13.
- Kim, H. Y., & Park, C. U. (2007). Effects of mid-size city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on perceived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9(2), 43-58. ☞ 국문: 김호영, 박철웅(2007). 중소도시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이 지각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9(2), 43-58.
- Kim, N. Y.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adolescent stress on happiness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riend, family, teach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871-882. <http://dx.doi.org/10.22143/HSS21.12.1.61> ☞ 국문: 김나예(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친구, 가족, 교사). *인문사회*21, 12(1), 871-882.
- Kim, S. Y.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adolescent's subjective*

- well-being: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s of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국문: 김서연(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Kim, S. Y., Lim, J. Y., Kim, S. O., Park, S. H., & You, S. R. (2006). *Korean youth development index survey 1: Comprehensive youth development index*.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06-R-02-1). ㉮ 국문: 김신영, 임지연, 김상옥, 박승호, 유성렬 (2006). **한국청소년발달 지표조사1: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6-R-02-1).
- Ko, J. W. (2020).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multicultural youth: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국문: 고지원(2020).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Kwon, Y. J., & Yun, H. J. (2020).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happiness related variables: A comparison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31(1), 183-210. <http://doi.org/10.14816/sky.2020.31.1.183> ㉮ 국문: 권용준, 윤현정(2020).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31(1), 183-210.
- Lee, H. J. (2016).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youth: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social capital factor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39(0), 151-186. ㉮ 국문: 이홍직(2016).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39(0), 151-186.
- Lee, H. J. (2021).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school happi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21(1), 27-44. <http://dx.doi.org/10.51613/JKYCA.2021.2.1.27> ㉮ 국문: 이현주(2021).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학회지**, 2(1), 27-44.
- Lee, J. H., & Choi, Y. C. (2014). Analys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adolescents: Focusing on OECD countrie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2), 67-84. <http://doi.org/10.18397/kcgr.2014.18.2.67> ㉮ 국문: 이지혜, 최영출(2014).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보학보**, 18(2), 67-84.
- Lee, S. J. (2019). *Daily life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 poverty and not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이수진(2019).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Y. J. (2018). The influence of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5), 1023-1035. <http://doi.org/10.22143/HSS21.9.5.73> ㉮ 국문: 이윤정(2018).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1023-1035.
- Park, E. H., & Sung, H. G. (2018). The effect of academic performance on happiness: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7(1), 251-277. <http://doi.org/10.20497/jwce.2018.7.1.251> ㉮ 국문: 박은하, 성한기(2018). 학업성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7(1), 251-277.
- Ra, J. M., & Kim, S. Y. (2022).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school factors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4), 57-76. <http://doi.org/10.34226/gcl.2022.12.4.57> ㉮ 국문: 나종민, 김소영(2022).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4), 57-76.
- Seo, J. S. (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for adolescent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4), 595-611. <http://doi.org/10.13049/kfwa.2018.23.4.3> ㉮ 국문: 서종수(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595-611.
- Seong, B. H., & Yoon, S. A. (2010).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6(0), 103-134. ㉮ 국문: 정보훈, 윤선아(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0), 103-134.
- Song, H. R. (2020).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국문: 송혜리(2020). **빈곤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Suh, J. W., & Jung, Y. T. (2014). Comparison of influences of variables on subjective happiness in the youth: Personal cap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265-292. ㉮ 국문: 서재욱, 정운태(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Yeom, Y. S., & Kim, K. M. (2019). *Happiness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 report on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 국문: 염유식, 김경미(2019).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 Yeom, Y. S., & Seong, G. H. (2021). *Happiness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 report on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 국문: 염유식, 성기호(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Yun, Y. J., & Kim, J. Y. (2020).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depression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 grou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6), 1-21. <http://doi.org/10.21509/KJYS.2020.06.27.6.1>  
☞ 국문: 윤여주, 김지영(2020). 청소년의 고통 감내력과 우울 및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1-21.